



2026 VISION

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와 함께 놀다가 이런 적 있나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괴롭힐 때, 내 편이 되어 주는 친구가 있어서 힘이 났던 적 말이에요. 또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친구가 있어서 위로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두 친구가 나와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걱정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만약 요나단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아버지 편에 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사랑했고, 친구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위험한 상황을 알려 주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요나단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친구들, 좋은 친구는 함께 노는 친구만이 아니에요. 힘들 때 위로해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주셨어요.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 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고, 혼자 있을 때 함께해 주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우리 함께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친구를 사랑할래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